



# 인도 농작물 보험의 현황과 미래

한성원 연구원

인도의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은 2016년 기준 3,920억 달러로 전체 GDP의 17%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 경제 규모임. 토지 이용 변화, 물 부족 및 기후 변화의 영향과 더불어 인구 증가로 인해 농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정부는 보다 탄력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2015년 기준 인도 농민에 대한 농작물 보험 가입률은 약 22%이며, 최근 인도 정부는 2018년까지 농민의 50%에게 작물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 농작물 보험(PMFBY: Pradhan Mantri Fasal Bima Yojana)을 도입하였음. 또한, 인도는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확률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농작물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인도의 농업 부문 국내총생산은 2016년 기준 3,920억 달러로 전체 GDP의 17%를 차지하며,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업 경제 규모임<sup>1)</sup>
  - 인도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토지 이용 변화, 물 부족 및 기후 변화의 영향과 더불어 인구 증가로 인해 농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정부는 보다 탄력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sup>2)</sup>
  - 인도는 가뭄, 홍수 태풍 등 날씨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 2016년 몬순기간<sup>3)</sup>에 발생한 가뭄으로 카리프 지역에 큰 피해를 입음
    - 인도 농지의 50% 이하에 관개시설이 구축되어있으며 나머지는 빗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임
  - 인도 정부는 1985년부터 농작물 보험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인도 손해보험시

1) CIA World Fact book

2) Lloyd's(2018), "Harvesting opportunity - exploring crop (re)insurance risk in India"

3) 인도는 관개시설이 미흡해 농민들이 연평균 강수량의 80%가 내리는 몬순 기간(6~9월 사이)에 의지해 농사를 짓고, 이에 따라 몬순 기간 중 강수량이 많으면 인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사용됨

장에서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다음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인도 손해보험시장은 자동차보험 39%, 건강보험 24%, 농작물보험이 16%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농작물 보험 가입률은 약 22%이며, 최근 인도 정부는 2018년까지 농민의 50%에게 작물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 농작물 보험(PMFBY: Pradhan Mantri Fasal Bima Yojana)을 도입하였음<sup>4)</sup>

- 농작물 보험을 도입한 첫 해에 인도의 농작물 보험시장은 전년도대비 300% 성장함
- 인도의 농작물 보험 제도는 몬순비가 늦어지거나 악천후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음(〈표 1〉 참조)

〈표 1〉 인도 정부의 농작물 보험 정책(PMFBY)의 주요 내용

가입 자격	대출 농가는 의무가입, 그 외는 선택 가입
담보 위험	- 화재, 가뭄, 해충, 질병, 태풍, 허리케인, 홍수, 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한 감소된 농작물 - 악천후로 인해 모내기·파종이 불가할 경우 최대 가입금액의 25%까지 보상
손해 분담	전국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총 농작물보험료의 35% 또는 총 보험가입금액의 35% 중 높은 금액까지 보험회사가 담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50%씩 부담

자료: Lloyd's(2018)

■ 또한, 인도는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확률론적 모형을 이용하여 농작물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인도는 확률론적 모형을 적용하여 농작물 보험가격을 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 불확실성에 대한 손실 예측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손실정도를 다르게 측정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손실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 [kiri](#)

4) PIB(Press Information Bureau), 2016년 12월 보도자료